

##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

조보라<sup>1</sup>, 유은아<sup>1</sup>, 박수진<sup>1</sup>, 조아라<sup>1</sup>, 박수연<sup>1</sup>, 박서영<sup>1</sup>, 김동영<sup>1</sup>, 김현용<sup>1\*</sup>, 강경아<sup>1</sup>  
<sup>1</sup>삼육대학교 간호학과

##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der of Nursing Students

Bo-Ra Jo<sup>1</sup>, Eun-Ah Yoo<sup>1</sup>, Su-Jin Park<sup>1</sup>, Ara Jo<sup>1</sup>, Su-Youn Park<sup>1</sup>, Suh-Young Park<sup>1</sup>,  
Dong-Young Kim<sup>1</sup>, Hyun-Yong Kim<sup>1\*</sup> and Kyung-Ah Ka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2개 간호대학(과)에 재학하는 학생 4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t-test,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one way ANOVA, Pearson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별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여학생은 학년과 휴학유무, 남학생은 동아리 활동유무이었다.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는 남녀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ompa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different sexes of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445 students from two nursing schools in the Seoul cit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Male students had much better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than female students. Variables which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rding to sexes were in the females' case, grade and leave of absence and in the males' case, club activitie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oth sexes. In both groups, the factor that affected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resilience.

**Key Words** :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Resilience, Sex, Students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는 학제별 미취업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학졸업자 4명중 1명이상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청년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기침체와 취업난

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 이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취업에 유리한 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간호학전공은 4년제 대학에서 정규직 취업률 1위(91.9%)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최근 간호학과 입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공분야는 간호학과로 12.5:1이고, 4년제 대학에서는 간호학과

\*Corresponding Author : Hyun-Yong Kim(Sahmyook Univ.)

Tel: +82-2-3399-1585 email: jkremnant@gmail.com

Received January 24, 2013

Revised (1st March 19, 2013, 2nd April 3, 2013)

Accepted April 11, 2013

경쟁률이 8위로 10.4:1을 나타내었다 [2]. 또한 간호를 여성중심의 학문으로 인식하던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 간호직의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남학생들이 간호학 분야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 최근 간호학과에 남학생 입학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남자 간호사 면허취득률 또한 2004년도에는 1.0%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5.4%, 2012년 7.5%로 나타나 간호계에 남자 간호사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3,4].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이 취업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간호대학 졸업 후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남자 간호사에 대해 친숙하지 못한 사회인식과 기존 간호학과 이론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과 학과분위기가 남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전공 및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5]. 이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직업 사명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취업 후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조직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545명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6] 전공만족도 평균은 5점을 기준으로 3.61점을 기록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국내 3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 또한 15.8%[7]로 다른 보건복지 사업종사자의 이직률 2.16%[8]와 비교했을 때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간호대학생들이 그들의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에 그들이 간호사가 되어서도 임상에서 현실충격을 극복하지 못하며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고려해 볼 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신적 지각을 형성하는 것은[9] 여학생 뿐 아니라 남자 간호대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10]이라고 정의하는데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 종사자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태도 및 지각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은 간호전문직에도 적용된다[11]. 간호사가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을 소유하는 것은 간호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직종이 공존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문직으로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데 간호사의 긍정적인 전문직 자기개념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학교교육과 보수교육, 근무부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조직의 정책 등의 요인에 따라 발달된다고 하였다[9]. 따라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전문직 정체성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에서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해 연구된 결과는 단순히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 정도만을 파악하는 서술적 연구만 수행되었거나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가 소수 발표되었을 뿐이다[1,6,11,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 후에도 전문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자 간호학생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간호교육과정 개발과 진로 지도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 1.2 연구 목적

- 1) 성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비교한다.
- 2) 성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비교한다.
- 3) 성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 4) 성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을 비교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남·여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S대학교와 Y대학교 간호대학(과)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설문지 응답에 서면동의한 학생 총 459명이었다. 대상자수 선정기준은 G 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핵심분석내용으로하여 양측검정, intercept 2, 유의수준  $\alpha = 0.05$ , 검정력 .70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수는 성별 그룹 당 57명 씩 총 114명 이었다. G power 기준에 근거해 볼 때 한 그룹 당 57명이 필요로 되었으며 설문조사 후 불충분한 자료 14부를 제외한 남학생 응답 설문지 52부, 여학생 응답 설문지 393부로 총 44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G power 기준에 근거해 볼 때 여학생의 경우 충분한 대상자 수이며, 남학생의 경우도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가 확보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 재구성 능력,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능력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이다[9].

본 연구에서는 Park[13]의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Klohn[9]이 CPI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CAQ (California Adult Q-set)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29문항의 도구이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진술 4 문항과 부정적 진술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의 사용을 위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간호학 교수 3인과 현직 병원 간호사 7인에게 의뢰하였으며 각 문항별 CVI(content validity index) 계수는 모두 80%이었다. Park[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 2.3.2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의미한다[14]. Song과 No[15]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27문항의 도구를 간호학생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다. 현직 임상 간호사 1명, 간호학 박사 3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후 비슷한 의미의 다른 문항이 있다고 판단된 4문항을 삭제하였고 최종 선정된 23문항의 CVI 계수는 모두 80% 이상이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성이 .20 이하인 문항 3문항을 삭제 후 최종 20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는 '전혀 아니다' 1점으로부터 '항상 그렇다'

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ng과 No[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8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출 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2개 대학교 간호대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담당 교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459부가 회수되었으며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후, 총 445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서술통계,  $\chi^2$ -test, t-test를 하였고 기대도수가 5미만인 경우는 Fisher's exact test를 하였다.
-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일반적 특성별 차이검증은 t-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 성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은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전문직 자아개념 비교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02세 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21.97세, 남학생은 22.40세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학년별 분포는 여학생의 경우 2학년이 28.5%, 3학년이 28.0%, 1학년 24.2%, 4학년이 19.3% 순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2학년 34.6%, 3학년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rding to sex

Characteristics	Category	Total(n=445)	Female(n=393)	Male(n=52)	$\chi^2/t$	p
		n(%) / M±SD	n(%) / M±SD	n(%) / M±SD		
Age		22.02±2.14	21.97±2.10	22.40±2.41	1.38	.168
Grade	Freshmen	108(24.3)	95(24.2)	13(25.0)	2.12	.551
	Sophomore	130(29.2)	112(28.5)	18(34.6)		
	Junior	125(28.1)	110(28.0)	15(28.8)		
Religion	Senior	82(18.4)	76(19.3)	6(11.5)	0.65	.882
	Yes	258(58.0)	227(57.8)	31(59.6)		
	None	187(42.0)	166(42.2)	21(40.4)		
Family income (10,000won/month)	<300	86(19.3)	69(17.6)	17(32.7)	8.60	.014
	300~500	204(45.8)	180(45.8)	24(46.2)		
	>500	155(34.8)	144(36.6)	11(21.2)		
Leave of absence	Yes	41(9.2)	37(9.4)	4(7.7)	0.16	.463
	None	40.4(90.8)	356(90.6)	48(92.3)		
Special admission	Yes	36(8.1)	33(8.4)	3(5.8)	0.42	.371
	None	409(91.9)	360(91.6)	49(94.2)		
Major satisfaction on admission (5 point scales)		2.29±0.89	2.34±0.88	1.96±0.88	-2.90	.005
Decision time for applying to nursing major	Under the 2th grade of high school	83(18.7)	72(18.3)	11(21.2)	11.03	.004
	Under the 3th grade of high school	135(30.3)	110(28.0)	25(48.1)		
	Just before apply to a university	227(51.0)	211(53.7)	16(30.8)		
Club activity in university	Yes	301(67.6)	261(66.4)	40(76.9)	2.31	.084
	None	144(32.4)	132(3.6)	12(23.1)		
Resilience		3.55±0.50	3.51±0.49	3.84±0.53	4.13	<.001
Professional Self Concept		2.86±0.30	2.84±0.28	3.03±0.38	3.51	.001

28.8%, 1학년 25.0%, 4학년 11.5%로 남녀 학생이 같은 비율을 보였다. 종교는 여학생의 경우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57.8%, 없음이 42.2%이었고 남학생은 있음이 59.6%, 없음이 40.4%로 여학생과 비율이 비슷하였다. 여학생의 가족 월수입은 300~500만원 미만(45.8%)과 500만원 이상(36.6%)이 많았지만 남학생의 경우 300~500만원 미만이 46.2%, 300만원 미만이 32.7%이었다. 휴학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남학생이 92.3%, 여학생이 90.6%로 남학생이 더 높았다. 편입을 한 대상자는 여학생이 8.4%, 남학생이 5.8%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입학시 학과 만족도를 5점척도로 조사한 결과 여학생은 2.34점(±0.88), 남학생은 1.96점(±0.88)으로 여학생이 간호학과 입학당시 학과 만족도는 더 높았다. 간호학과 지원 결정시기는 여학생의 경우 대학지원자가 53.7%,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8.0%이었고 남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48.1%, 대학지원자가 30.8%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대학교 재학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여학생은 66.4%, 남학생은 76.9%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동아리 활동참여도가 높았다.

두 군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분석결과, 가족 월수입( $\chi^2=8.60$ ,  $p=.014$ ), 입학시 학과만족도( $t=-2.90$ ,  $p=.005$ ), 간호학과 지원 결정시기( $\chi^2=11.03$ ,  $p=.004$ )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5점 척도 문항 평균을 구한 결과 남학생이 3.84(±0.53)점으로 여학생 3.51(±0.4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4.13$ ,  $p<.001$ ). 전문직 자아개념 또한 남학생 문항 평균이 3.03(±0.38)점으로 여학생 2.84(±0.28)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3.51$ ,  $p=.001$ )

### 3.2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별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비교

남녀 학생에 따른 일반적 특성별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Table 2] Difference of the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sexes

Characteristics	Category	Resil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Female(n=393)			Male(n=52)			Female(n=393)			Male(n=52)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rade	Freshmen	3.38±0.42			3.82±0.47			2.81±0.26			3.08±0.29		
	Sophomore	3.54±0.48			3.87±0.69			2.81±0.29			3.13±0.49		
	Junior	3.52±0.47	3.45	.017	3.81±0.44	0.03	.990	2.87±0.26	1.91	.127	2.94±0.31	1.03	.384
	Senior	3.61±0.57			3.84±0.53			2.88±0.30			2.90±0.30		
Religion	Yes	3.53±0.51			3.90±0.51			2.84±0.29			3.08±0.38		
	None	3.49±0.46	0.72	.469	3.75±0.58	0.97	.338	2.85±0.26	-0.27	.782	2.97±0.38	1.01	.311
Family income (10,000won/month)	<300	3.45±0.52			3.92±0.51			2.80±0.26			3.06±0.36		
	300~500	3.52±0.51	0.83	.437	3.79±0.46	0.28	.752	2.86±0.28	1.16	.312	3.05±0.41	0.18	.831
	>500	3.54±0.44			3.83±0.73			2.85±0.28			2.97±0.37		
Leave of absence	Yes	3.67±0.50			3.74±0.43			2.81±0.20			2.76±0.29		
	None	3.49±0.48	2.04	.047	3.85±0.55	-0.48	.656	2.84±0.28	-0.68	.496	3.06±0.38	-1.52	.133
Special admission	Yes	3.53±0.56			3.86±0.44			2.91±0.30			3.00±0.35		
	None	3.51±0.48	0.24	.809	3.84±0.54	0.05	.954	2.84±0.27	1.47	.142	3.04±0.38	-0.18	.856
Decision time for applying to nursing major	Under the 2th grade of high school	3.52±0.48			3.86±0.46			2.88±0.24			3.09±0.41		
	Under the 3th grade of high school	3.48±0.51	0.38	.679	3.79±0.58	0.20	.812	2.86±0.24	1.99	.137	2.97±0.34	0.65	.525
	Just before apply to a university	3.53±0.48			3.90±0.54			2.82±0.30			3.10±0.42		
Club activity in university	Yes	3.55±0.49			3.93±0.52			2.86±0.29			3.11±0.38		
	None	3.45±0.48	1.86	.063	3.55±0.48	2.27	.035	2.81±0.25	1.78	.075	2.79±0.27	3.14	.004

[Table 3] Relationship of the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etween Sexes

	Resilience r(p)		
	Female(n=393)	Male(n=52)	Total(n=445)
Professional Self Concept r(p)	.580*	.655*	.608*

\*p<.001

자아개념 차이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학생의 경우 일반적 특성별 자아탄력성 양상을 살펴보면,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45, p=.017), 각 학년별 차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휴학유무에 따라서도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04, p=.047) 휴학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일반적 특성별 자아탄력성(t=2.27, p=.035)과 전문직 자아개념(t=3.14, p=.004)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동아리 활동 유무이었다(t=2.84, p=.009). 즉,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남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았다.

### 3.3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비교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80, p<.001). 남학생 또한 자아탄력성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655, p<.001). 전체학생의 경우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608, p<.00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정도가 높음이 파악되었다[Table 3].

### 3.4 성별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 비교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결과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determinant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rding to sexes

Predictors	Female(n=393)				Male(n=52)			
	$\beta$	Standard error	$\beta$	t(p)	$\beta$	Standard error	$\beta$	t(p)
Constant	1.596	0.089	-	17.993 ( $<.001$ )	1.493	0.339	-	4.399 ( $<.001$ )
Grade	0.021	0.012	0.079	1.718 (.087)	-0.066	0.051	-0.168	-1.299 (.201)
Religion D1 (dummy variable)	-0.028	0.023	-0.049	-1.184 (.237)	0.055	0.083	0.071	0.658 (.514)
Family income D1* (dummy variable)	-0.033	0.034	-0.044	-0.974 (.331)	0.066	0.116	0.082	0.571 (.571)
Family income D2** (dummy variable)	0.001	0.026	0.001	0.021 (.983)	0.118	0.108	0.155	1.086 (.284)
Leave of absence D1 (dummy variable)	-0.103	0.041	-0.107	-2.515 (.012)	-0.231	0.174	-0.162	-1.328 (.192)
Special admission D1 (dummy variable)	0.073	0.044	0.072	1.653 (0.099)	0.073	0.191	0.045	0.382 (.704)
Decision time for applying to nursing major D1† (dummy variable)	0.094	0.032	0.129	2.943 (.003)	-0.042	0.116	-0.045	-0.360 (.720)
Decision time for applying to nursing major D2‡ (dummy variable)	0.075	0.027	0.120	2.761 (.006)	-0.146	0.103	-0.193	-1.418 (.164)
Club activity in university D1 (dummy variable)	0.051	0.026	0.085	1.970 (.050)	0.178	0.107	0.198	1.662 (.104)
Resilience	0.327	0.024	0.575	13.905 ( $<.001$ )	0.402	0.080	0.567	5.032 ( $<.001$ )
Statistics	R <sup>2</sup> =.378, Adj R <sup>2</sup> =.362 F=23.184, p <.001				R <sup>2</sup> =.553, Adj R <sup>2</sup> =.445 F=5.082, p <.001			

\* Family income D1= <300 (10,000won/month)

\*\* Family income D2= 300~500 (10,000won/month)

† Decision time for applying to nursing major D1= Under the 2th grade of high school

‡ Decision time for applying to nursing major D2= Under the 3th grade of high school

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36.2%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간호학과 결정시기, 휴학여부, 클럽활동 유무, 편입 여부 순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44.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자아탄력성 변수만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남녀 학생 모델 모두에서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이었고 VIF 수치 또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고 영향력 진단을 위해 Cook의 거리를 확인한 결과 1.0 이상 되는 사례는 없었다. 잔차분석을 위해 각 변인의 산포도가 특정분포를 띄지않고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등분산성을 보여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남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간호대학의 현황을 근거로 남녀 차이에 따른 간호전문직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가족 월수입, 입학시 만족도, 간호학과 지원 결정시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0만원 미만의 가족 월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남학생(32.7%)이 여학생(17.6%)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았으며, 간호학과 지원 결정시기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때 결정하는 대상자가 69.3%이며 여학생은 46.3%이었고 대학 지원시에 결정한 경우는 남학생은 30.8%, 여학생은 53.7%로 나타났다. 반면 입학시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낮았다. 남학생의 경우 입학시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에도 여학생에 비해 간호학 지원 결정시기가 빠른 점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어려운 점은 타 연구결과[5,16]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 간호학생의 학과 적응경험을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한 Lee 등[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여학생 집단 내에서 소수의 남학생의 적응경험의 중심현상은 '이질감'이었다. 간호학을 선택한 후 남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 및 여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과 관련해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휴학, 자퇴, 전과 등으로 이탈하지 않고 모두 재학하며 여학생 중심의 학과생활을 버티는 주된 원인은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가 한시적인 학과생활을 버티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확인되었다[17-19]. 여학생에 비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남학생의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이어져 최근 남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연구결과 남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아탄력성의 요소를 자신감이 있는 낙관성, 자율성, 생산적인 활동,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온정, 기술적 표현방법으로 보는 견해와[13], 또래관계 및 자신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쾌활함을 포함하는 자기수용 및 낙천성 등의 요인으로 분석된 결과가 보고되었다[20]. 또한 Lee[21]는 자아탄력성의 요소를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성별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전문직 자아개념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입학시 간호학과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음을 볼 때 대상자를 확대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여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파악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연구한 Lee와 Kim[1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와 달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으나 문항평균 5점 만점에 3.27 정도를 보였고 이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학생으로서 추후연구를 통해 남녀 간호대학생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정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남학생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한 그룹에서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동아리 활동을 한 그룹에서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 및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O'Lynn[22]의 연구에서도 남자 간호학생들은 남학생을 위한 지도력, 또래 지지집단의 부재 등을 간호 교과과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간호학의 정체성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필요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동아리 활동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는 남학생, 여학생, 전체대상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36.2%, 남학생은 44.5%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이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만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한 Cha[2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성을 파악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자아탄력성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높은 상관성을 보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본다.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전문직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 Lee와 Kawk[24]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전문직 태도정도가 높음이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자아탄력성은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간호학 교육과정동안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필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2개 간호대학(과)에 재학하는 학생 4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t-test,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one way ANOVA, Pearson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자아탄력성( $t=4.13, p<.001$ )과 전문직 자아개념( $t=3.51, p=.001$ )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별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여학생의 경우 학년( $F=3.45, p=.017$ )과 휴학유무( $t=2.04, p=.047$ )이었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유무가 자아탄력성( $t=2.27, p=.035$ )과 전문직 자아개념( $t=3.14, p=.004$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탄력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는 간호학과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580, p<.001$ ).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요인의 설명력은 여학생이 36.2%, 남학생은 44.5% 정도이었으며,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녀 모두 자아탄력성이었다.

최근 2010년 이후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성별에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 및 활동분야에 대한 요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간호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을 파악한 본 연구결과는 미래의 간호사들의 성향과 간호학에 대한 정체성을 예측하기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성별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특성, 성향 및 교육요구도, 기대하는 간호전문직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이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또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영향 변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References

- [1] Ko, Y. J., &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pp. 62-71, 2011.
-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annual report. Seoul: Author, 2012.
- [3] Do, H. J., & Kim, Y.S. Study o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subjectivity in their attitude toward jobs.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pp. 167-175, 2008.
- [4] Jung, K. S., & Kim, S. H. Time of 5,000 male nurses.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A1. 2012. May. 12.
- [5] Lee, J. S., Kim, N. J., Doo, H. J., An, J. Y., & Lee, Y. K.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pp.159-169, 2005.
- [6] Moon, I. O., & Lee, K. 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pp. 83-91, 2010.
- [7] Im, S. B., Kim, S.Y., Ko, Y., & Lee, M.Y. Clinical nurses' perceptions o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according to age group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8(2), pp. 215-227, 2012.
- [8] Park, H. J. The study of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he measurement. Seoul: Statistics Korea, 2010.
- [9] Klohn, E. 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pp. 1067-1079, 1996.
- [10] Arthur, D.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Newcastle, 1990.
- [11] Lee, M. H.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eadership and competency in operating room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12] Lee, K. S., & Kim, M. S. The survey about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s grades in nursing students. Ewha Nursing Studies, 35, pp. 70-80, 2002.
- [13] Park H. J.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ccording to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1996.
- [14] Geiger, J. W. K., & Davit, J. S.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19, pp. 50-58, 1988.
- [15] Song, K. A., & No, C. 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1), pp. 94-106, 1996.

- [16] Choi, S. J. Male students' lived experience in the female-dominant nursing college. Qualitative Research, 4(1), pp.52-63, 2003.
- [17] Boughn, S.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and Health Care Perspectives, 22(1), 14-19, 2001.
- [18] Evans, J. Men nurses: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7(3), 321-328, 2004.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4.03096.x>
- [19] Kleinman, C. S. Understanding and capitalizing on men's advantages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34(2), 78-82, 2004.  
DOI: <http://dx.doi.org/10.1097/00005110-200402000-00005>
- [20] Lee, J. Y. Validation of the Korean resilience rating scale for children(KP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000.
- [21] Lee, S. Y. Effects of ego-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on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2009.
- [22] O'Lynn, C. E.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5), 229-236, 2004.
- [23] Cha, U. J.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24] Lee, D. H., & Kawk, S. 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cept and professional attitude of dental technician.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19(1), pp. 47-57, 2001.

---

**조 보 라(Bo-Ra Jo)**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모성간호학, 고위험 모성간호

---

**유 은 아(Eun-Ah Yoo)**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아동간호학, 심장질환간호

---

**박 수 진(Su-Jin Park)**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당뇨환자간호

조 아 라(Ara Jo)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종양간호

김 동 영(Dong-Young Kim)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호스피스환자간호

박 수 연(Su-Youn Park)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호스피스환자간호

김 현 용(Hyun-Yong Kim)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노인간호학, 정신간호

박 서 영(Suh-Young Park)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당뇨환자간호

강 경 아(Kyung-Ah Kang)

[정회원]



- 1987년 8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1990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1년 9월 ~ 2002년 8월 : Rhode Island Univ. (방문교수)
- 1992년 4월 ~ 현재: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학, 호스피스완화간호